산업리스크
분석보고서

Vol. 2011-17 (2011.10.31.)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에너지 시장 분기 동향
(2011년 3분기)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 **3**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 ····· **6**

1. 업스트림(Upstream) 산업 ····· 6
2. M&A 거래 ····· 10

III. 주요 이슈 ····· **12**

작성 : 책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이해청 (3779-6670)
hclee@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요 약 >

□ **(에너지 가격 동향) 유가는 8월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하락 이후 9월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유로존 확산 우려로 10월 초 연중 최저치 기록(75.7달러, 10월 4일)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기대감으로 90달러 초반대까지 급등(93.3달러, 10월 28일)**

○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과잉 및 재고 증가로, 전력용 유연탄 가격은 계절적 비수기 돌입으로 하락세

○ 우라늄 가격은 원전수요 감소 우려에 따라 8월말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 소폭 증가했으나 9월 말 이후 다시 하락세

□ **(에너지 가격 전망) 2011년 4분기 유가는 유로존 위기 등 수요 감소 우려로 하향 안정화하여 배럴당 83달러(WTI油 기준) 수준 전망**

○ 2011년 천연가스 연평균 가격(Henry Hub 현물)은 mmBTU당 4.15달러가 될 것으로 하향조정 전망(미 에너지정보청)

□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 동향) 고유가, 기술발전에 따라 비전통자원의 개발 경제성이 향상되어 국제석유기업의 개발 및 관련 자산 인수 활발**

○ 최근 국제석유기업 기업들은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LNG, 심해자원, 비전통석유 및 비전통가스 등의 네 가지 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

□ **(주요이슈 : 리비아 내전 종식 이후 석유개발 전망) 리비아 내전 종식으로 석유개발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주요 석유전문기관은 향후 리비아 석유생산 정상화까지 2~3년 소요 전망**

○ 리비아 반군 진영은 이미 내전 피해가 크지 않은 일부 석유설비 가동을 재개했으며, 향후 1년 내에 석유생산규모를 내전이전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

○ 그러나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석유전문기관은 리비아 내 불안정한 치안 등으로 인해 내전이전 수준으로 석유생산이 회복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리비아 생산 확대는 향후 국제유가 안정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1. 에너지 가격 동향

□ **(석유) 8월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하락(WTI油 79.3달러, 8월 9일), 9월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배럴당 90달러선까지 회복했으나 유로존 확산 우려로 再하락하여 10월 초 연중 최저치 기록(75.7달러, 10월 4일) 이후 유럽재정위기 해결 기대감으로 10월 말 90달러 초반까지 급등**

◦ 7월 중순 이후 유럽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배럴당 99.87달러까지 상승 이후 미 원유재고의 예상외 증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급락하여 8월 초 80달러대 붕괴

◦ 8월 중순 이후 달러화 약세, 미 경기부양책 기대감, 미 동부 허리케인 영향, 재고감소 전망 등으로 유가 상승하여 9월 초 배럴당 90달러선 회복(90.2달러, 9.13.)

◦ 9월 중순 이후 유로존 우려 확산 등으로 하락하여 10월 초 연중 최저치 기록 이후 예상외 원유재고 급감, 유럽 유동성 공급 조치 발표 등으로 급등(93.3달러, 10.28.)

□ **(천연가스) 7월 초에서 중반까지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이후 공급과잉, 재고증가 등으로 하락세**

◦ 무더위 예보로 7월 중순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4.546/mmBTU, 7.15.)했으나 천연가스 재고의 예상외 증가 등으로 가격 하락세

◦ 공급과잉, 재고증가 부담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10월 초 연중 최저치 기록 ($3.48/mmBTU, 10.7.)

□ **(전력용 유연탄) 7월 중순 이후 여름철 냉방용 수요 견조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9월 초까지 이어졌으나 계절적 비수기 돌입으로 하락세로 전환($112.85/ 톤, 10.28.)**

□ **(우라늄) 3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8월 말 파운드당 50달러선붕괴, 9월 들어 상승하여 월초 파운드 당 50달러에서 54.5달러까지 올랐으나 9월 말 이후 소폭 하락(52.0달러/ lb, 10.28.)**

〈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2009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연중 최저	연중 최고
유가 ($/배럴)	WTI	79.3	83.4	75.6	80.0	91.4	106.7	95.4	79.2	75.7 (10.4.)	113.9 (4.29.)
	Brent	77.9	82.7	75.0	82.3	94.8	117.4	112.5	102.8	93.3 (1.7.)	126.7 (4.8.)
	Dubai	77.4	78.7	73.1	77.2	91.4	109.4	106.8	100.6	89.7 (1.5.)	118.3 (4.11.)
천연가스 ($/백만BTU*)		5.6	3.9	4.6	3.9	4.4	4.4	4.4	3.7	3.5 (10.7.)	4.8 (6.8.)
유연탄(전력용) ($/ton)		80.8	84.3	91.5	89.2	130.8	121.0	120.2	117.3	110.7 (10.19.)	131.4 (1.3.)
우라늄 ($/lb)		44.5	42.0	41.8	47.0	62.5	62.5	52.2	52.2	49.2 (8.31.)	73.0 (2.14.)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주) 유가는 2010년 1/4분기까지 현물가격, 4월 이후 WTI油 선물 1월물(NYMEX)/브렌트油 선물 1월물(ICE)/두바이油 현물가격, 천연가스 선물 1월물(NYMEX), 유연탄은 리차드베이산(ICE), 우라늄은 NYMEX

* BTU : British Thermal Unit

2. 에너지 가격 전망

□ **(유가) 2011년 하반기 유가는 유로존 위기 등 수요 감소 우려로 상반기 대비 하락하여 4분기는 배럴당 83달러 수준(WTI油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OPEC 원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3만b/d 감소하겠으나, 비OPEC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49만b/d 증가할 전망

- OPEC 원유생산 하락폭이 사우디 생산 확대(2분기 910만b/d → 3분기 990만b/d)에 힘입어 당초예상(36만b/d 감소 전망) 대비 축소

  · 리비아는 2012년 말까지 내전 이전 생산 수준(160만b/d)의 약 50%를 회복할 전망

  · OPEC 잉여생산능력은 2011년 4분기 280만b/d로 하락하겠으나 리비아 생산 회복에 따라 2012년 말까지 35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비OPEC 원유생산 증가는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미국 등의 생산증가에 기인

◦ 2011년 석유수요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 수요 증가에도 불구, OECD 회원국 수요 감소로 인해 1.5%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

◦ EIA(미 에너지정보청)는 2011년 세계 석유소비가 8,840만b/d로 전년대비 132만b/d 증가하고, 연평균 유가는 배럴당 92.36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월 전망치 대비 2.04달러 하향 조정(10월)

〈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

(단위: $/bbl)

구 분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0년 평 균	2011년				
				1/4	2/4	3/4	4/4	평균
유 가	CERA ('11.10.14.)	Dubai	78.1	100.5	110.7	107.1	99.0	104.3
		Brent	79.5	105.0	117.4	113.5	102.0	109.4
		WTI	79.4	94.0	102.4	89.7	80.0	91.5
	EIA ('11.10.12.)	WTI	79.4	93.5	102.2	89.7	84.0	92.4
	PIRA ('11.9.23.)	Brent	79.5	105.0	117.4	113.5	113.4	112.3
		WTI	79.4	94.0	102.5	89.6	84.4	92.6

주1)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 **(천연가스) EIA는 2011년 미국 천연가스 연평균 가격(Henry Hub 현물)을 mmBTU당 4.15달러로 전망하며 전월대비 0.05달러 하향조정**

◦ 2011년 미국 천연가스 소비는 발전 및 산업부문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2억 cf[1]/d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천연가스 생산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6백60억 cf/d로 전망(10월)

- 미국 천연가스 생산 증가로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낮아지고,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1) cf(cubic feet, 입방피트)는 가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천연가스 1cf는 석유 0.178205 배럴에 해당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

1. 업스트림(Upstream)[2] 산업

□ **(세계) 고유가, 기술발전에 따라 비전통자원 개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제석유기업들이 관련 자산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타이트 오일과 오일샌드 개발 확대로 미국, 캐나다 업스트림 누계 자산가치가 3천4백억 달러로 상승

◦ 최근 국제석유기업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네 가지 유형 즉 LNG, 심해자원, 비전통석유 및 비전통가스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고 있음

- 근해, 육상에 위치한 대규모 전통 자원이 주로 자원민족주의가 심한 OPEC, 러시아 등에 집중되어 전통자원에 대한 국제석유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들 기업의 심해 및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지속 증가될 전망

◦ ExxonMobil을 비롯한 국제석유기업들 대부분 자산가치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주로 비전통자원 관련 자산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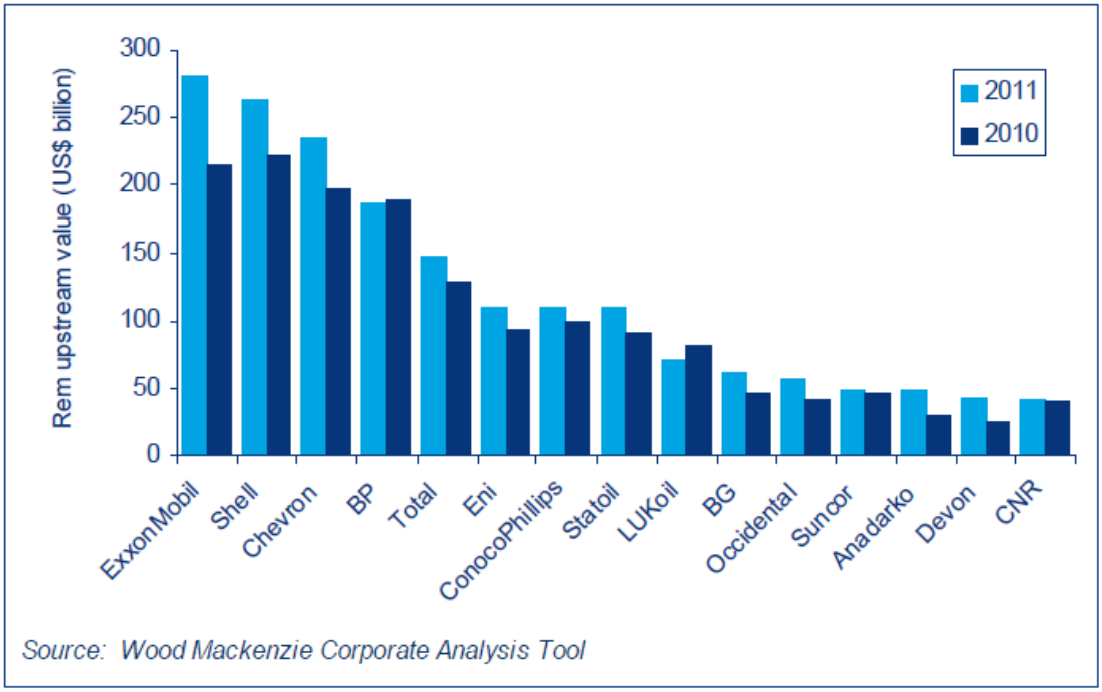
- 엑손모빌은 XTO Energy 인수를 통해 Shell을 추월하여 메이저 중에서 업스트림 자산가치(2천8백억 달러)가 가장 높으며 그 외 BP, ConocoPhillips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들도 인수 전략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평균 19% 증가할 계획

  · BP는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복구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여 자산 증가 정체

  · ConocoPhillips는 신성장전략(Shrink-to-grow) 하에 비핵심자산을 매각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준비

2) 석유가스산업은 크게 ① 유전 탐사개발·생산 ② 원유 수송 ③ 원유 정제 ④ 석유제품 수송 및 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① 부문을 업스트림(Upstream), ② 부문을 미드스트림(Midstream), ③ 이후 부문을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

〈 15대 국제석유기업의 2010~2011년 업스트림 자산 가치 변동 〉



□ **(유럽) Statoil은 노르웨이 근해의 알더스 사우스(Aldous South)/ 아발드스네스(Avalsnes) 광구에서 총 12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유전 발견(8월)**

◦ 규모면에서 역대 노르웨이에서 발견된 유전 중 10위권 내에 들며, 62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금번 발견은 특히 노르웨이의 노후화 유전에서의 발견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음

◦ Statoil은 노르웨이 석유·가스 생산의 80%를 담당하는 국제석유기업으로 정부가 지분 3분의 2 보유

- 동사는 2020년까지 생산량을 현재보다 33% 증가한 250만b/d로 늘리는 목표 하에 2011~2012년 탐사개발에 총 160억 달러 투자 계획

- 멕시코만, 아프리카 앙골라, 브라질 등으로의 사업확대 외에 노르웨이 근해 탐사 및 시추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러시아) 북극권역 자원개발을 위한 쇄빙선 추가제작 등 북극권역 석유·가스전 개발 본격화 움직임**

◦ 러시아 푸틴 총리는 북극권역 자원개발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10척의 쇄빙선 이외에 2020년까지 추가로 9척의 쇄빙선 제작 계획을 밝힘(9월 22일)

◦ Lukoil 사장은 북극권역 석유·가스전 개발 시 확인매장량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는 등 러시아 석유기업들의 북극권역 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대

- 러시아 최대 국영석유회사 Rosneft는 ExxonMoil과 함께 지난 8월 30일 러시아 북극권역 카라(Kara) 海 석유·가스전 공동개발 계약 체결

  · 계약에 의하면 ExxonMobil은 Rosneft가 광권을 보유한 카라海 3개 광구와 흑해 1개 광구에 대해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광구 탐사를 위해 3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Gazprom은 협력사들과 함께 야말(Yamal) 반도 석유·가스전 개발을 수년간 진행 중

◦ 바렌츠(Barents)海 슈토크만(Shtokman) 가스전 및 페초라(Pechora)海 프리라즐롬노예(Prirazlomnoye) 유전 개발 초기작업 개시

- Prirazlomnoye 탐사 플랫폼은 빙하에 견딜 수 있게 제작됨

□ **(카스피 연안) 아제르바이잔 카스피海 압세론 지역에서 340bcm[3]의 가스와 45백만톤의 콘덴세이트[4]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가스전 발견**

◦ 가스전이 발견된 위치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100km 떨어져 있으며, 매장층은 6,650미터 깊이

◦ 압세론 지역에 대한 개발 계약은 2009년 2월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 SOCAR와 Total간에 체결된 바 있음

- 프로젝트 지분은 SOCAR 40%, Total 40%, Gaz De France Suez 20%

- 압세론 지역에서의 가스 생산은 2020~2022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

3) billion cubic meter

4) 가스층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할 때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로, 초경질 원유

□ **(러시아) 러시아의 높은 사업 리스크에도 불구 소규모 외국기업의 러시아 석유가스 업스트림 진출 확대**

◦ 러시아는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로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업스트림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최근 몇 년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규모 기업의 진출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몇몇 소규모 기업들은 러시아 업스트림 분야에 진출하여 2010년 생산능력 3.5만b/d에서 2017년 9만b/d로 확대될 전망

- 이들은 러시아에서의 사업 운영 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인프라 설비가 이미 구축된 지역(West Siberia, Timan Pechora 등) 인근을 사업대상지로 선택하고 대기업의 관심이 떨어지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현지 사업 환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고용

◦ 향후 러시아 정부가 소규모 석유·가스전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할 경우 소규모 기업의 추가 진출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에는 1,000개가 넘는 무허가 소규모 유전이 있음

□ **(중동) BP는 오만 중북부 61광구 가스전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6월 20일)**

◦ BP는 오만 61광구 남부에 위치한 카잔(Khazzan) 가스전에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하여 330개의 가스정을 시추하고, 10년 후 하루에 10억 cf의 천연가스를 생산한다는 목표

◦ 2007년 1월, BP는 오만 정부와 61광구의 Khazzan, Makarem 가스전 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만 정부가 BP측의 금번 개발 계획에 동의하면 관련 계약 조건 협상을 개시할 예정

□ **(호주) 석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PRRT)를 전체 육상 및 해상 석유·가스전으로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 초안 발표**

◦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부터 종전 해양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던 PRRT를 육상 유·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

-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육상 석탄층 가스(Coal Seam Gas), 오일셰일(Oil Shale) 사업에도 PRRT가 적용될 예정

◦ PRRT는 자원개발 순이익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세금으로 소득에서 공제가능 비용을 제외한 과세 소득에 대해 40% 세율 부과

□ **(북미) 미국 정부는 2010년 BP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 이후 보류했던 멕시코만 심해유전에 대한 리스(Lease) 입찰을 내년 상반기에 재개할 계획**

◦ BP 원유유출사건이 발생한 중부 멕시코만 지역은 총 63백만 에이커 규모로 최고심이 11,345피트에 달하는데 미 정부는 동지역 개발 시 총 1조6,240억 배럴의 원유와 3,332조 cf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원유유출 사고 이전에 미 정부는 2011년 216개, 2012년 222개 광구를 입찰할 계획이었으며 2012년에 이를 합쳐 한 번에 입찰을 실시할 계획

□ **(북미) 캐나다 오일샌드 환경오염 이슈로 對유럽 수출 우려**

◦ EU 집행위원회는 오일샌드로부터 생산된 원유에 대해 전통원유보다 높은 탄소배출가격을 책정하는 안을 채택(10월 4일)하여, 이 결정이 EU 의회 통과 시 캐나다 오일샌드의 대유럽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

- 2010년 기준 캐나다 원유 생산량은 2.7백만b/d로 이중 30.7%는 국내 소비, 68.4%가 미국 수출, 나머지 0.9% 가량이 중국, EU 등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어 사실상 대유럽 수출의존도가 높지는 않은 상황

2. M&A 거래

□ **(캐나다) 중국 CNOOC는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생산기업인 OPTI Canada 인수(21억 달러) 계획 발표(2011. 7. 20.)**

◦ OPTI는 1999년 설립된 오일샌드 개발기업으로 알버타주의 'Long Lake 오일샌드 프로젝트'에서 일산 3만톤의 오일샌드를 생산하고 있음

◦ 최종 인수계약 이행은 4분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CNOOC는 MEG Energy(현재 2개의 오일샌드 프로젝트 보유) 지분 15% 확보에 이어 금번 인수로 캐나다 내 오일샌드 사업 기반을 한층 강화

□ **(중동) 아프리카 석유기업 Afren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 두 개의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 생산물분배계약) 인수(7월)**

◦ Afren이 인수한 유전의 추정매장량(2P[5])은 8.9억 배럴이며, 생산량이 7.5만b/d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

◦ 인수 금액은 5.88억 달러지만 두 개의 미개발 유전을 포함하는 등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아 쿠르드 지역을 둘러싼 리스크[6]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자산 가치는 2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 쿠르드 지역에서는 2004년 이래로 47건의 라이센스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30개의 탐사정이 시추되어 매장량 약 50억 배럴(2P) 이상으로 추정되는 17개의 석유·가스전 발견

- 현재 40개 이상의 국제석유기업이 쿠르드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 대규모 기업, 국영석유기업들은 쿠르드 내 리스크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으로 몇몇 기업[7]을 제외하고는 쿠르드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유럽) Total이 ExxonMobil로부터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인 Tempa Rossa 개발사업 지분 25% 인수 발표(7월)**

◦ Tempa Rossa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육상 유전으로 환경 및 법적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고는 있으나 2015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개발 진행 중

◦ 금번 거래된 자산가치는 6.7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Total의 Tempa Rossa 개발사업 지분이 75%로 증가

5) 상업적으로 채굴될 가능성이 높은 매장량(채굴 확률 50~90%)

6) 이라크 석유부와 쿠르드 지방정부간의 쿠르드지역의 PSC 부여권한을 둘러싼 갈등

7) 현재 크루드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메이저 및 국영석유기업은 Marathon, Talisman, Hess, Murphy, Repsol YPF, KNOC(한국석유공사), Sinopec 등

III. 주요 이슈 - 리비아 내전 종식 이후 석유개발 전망

1. 리비아 내전 종식에 따른 석유개발 재개 움직임

□ **올 상반기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리비아 내의 석유생산설비 가동이 잇따라 중단됨에 따라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음**

◦ 내전이 있기 전 리비아 석유생산량은 160만b/d였으나 지난 8월 생산량은 6만b/d로 급감

◦ 리비아 석유 수출량은 120만b/d로 그 중 85%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對유럽 수출로, 유럽지역 석유수급이 매우 타이트하게 되어 유가 중에서도 Brent油(영국 북해산 원유) 급등 초래

- Brent油 급등 여파로 WTI油(미국산 원유)와 Brent油간의 가격격차가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벌어짐

□ **지난 10월 20일 리비아 전 독재자 카다피 사망소식이 전해지며 올 2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리비아 내전이 반군 승리로 종결**

□ **내전이 마무리되면서 반군 정부는 일부 유전의 생산을 재개하는 한편, 리비아 석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국제석유기업들이 리비아 석유개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반군 산하의 국영 AGOCO(The Arabian Gulf Oil Company Oil)는 내전 피해가 크지 않은 일부 유전 및 정제 시설 조업을 9월 중순 이후 재개

◦ Eni(이탈리아), Total(프랑스), Repsol(스페인), Wintershall(독일) 등의 기업들이 일부 유전 가동 재개 선언

- 특히 Eni는 리비아 내 기존사업 복구 및 GreenStream(510km) 파이프라인을 통한 리비아산 가스 수입 재개(10월 중), 기술 지원 및 석유제품 공급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NTC와 체결(8.29.), 외국기업 최초로 리비아 석유개발 재개 선언

2. 향후 리비아 석유개발 전망

□ **리비아 정치 및 치안 불안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주요 국제석유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리비아 석유개발에 나설 전망**

◦ 내전 중에 반군 정부를 지지했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석유기업들이 향후 리비아 석유개발 사업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임

- AGOCO사 대변인이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석유기업들과의 사업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반군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국가들의 석유기업에 대해 신규 입찰에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는 발언이 반군 내부에서 제기

□ **리비아 반군은 향후 1년 내에 석유생산규모를 내전이전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

◦ 리비아 반군진영 NTC(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와 AGOCO는 9월, 5만b/d생산을 재개하여 3~4개월 안에 50만b/d 수준으로 증산, 1년 내 내전이전 수준(160만 b/d)을 목표로 함

- 반군진영은 동부 지역 유전(리비아 전체생산의 80% 차지) 안전유지를 위한 무장병력 배치, 9월 리비아 재건회의에서 150억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 등 석유개발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

□ **그러나 주요 석유전문기관들은 리비아 치안불안 등으로 리비아 석유생산이 내전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 반군 승리로 내전은 종식되었으나 카다피 진영 측의 간헐적 공격이 여전하고, 내전 중 카다피 측이 주요 석유시설에 대량의 지뢰를 매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음

◦ 치안불안으로 석유개발 인력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석유시설 피해 산정 작업이 지체될 가능성

- 구체적인 복구계획 및 생산재개 전망을 위해서는 내전으로 인한 주요 석유시설의 피해규모 파악이 선결되어야 함

◦ 주요 석유전문기관들은 리비아가 내전 이전의 석유생산 수준으로 회복하는데에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

- Wood Mackenzie(에너지컨설팅업체)는 리비아가 내전 이전 수준으로 석유를 생산하는데 약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IEA(세계에너지기구)는 최근의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 올해 말 리비아의 생산량이 35~40만b/d, 2012년 4분기 100만b/d 수준 예상

3. 결론 및 시사점

□ **리비아 내전 종식에 따른 생산재개로 2012년 국제석유가격은 올해 대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약 140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리비아의 신정부 체제가 안정화되기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에 따라 국제유가 역시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상존

□ **유럽 국가들이 금번 리비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국 석유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최근 석유개발 시장은 각국 외교 각축전이 되고 있음**

◦ 석유자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참고 자료>

1. www.koreapds.com
2. www.petronet.co.kr
3. 해외에너지자원정보(http://energy.mofat.go.kr/)
4. Wood Mackenzie, 'Upstream Insight/M&A Service Deal Insight'
5.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